

다음카카오 (035720)

카카오톡, 인터넷 전문은행 마케팅 플랫폼으로서의 적합성 구비

인터넷/소프트웨어 Analyst 성종화
02. 3779-8807
jhsung@ebestsec.co.kr

이슈
Call

2015. 4.8

News / Issue

- News 1 : 다음카카오 HK저축은행 인수 관련 뉴스 + 다음카카오측 HK저축은행 인수설 전면 부인 뉴스
- News 2 : 재벌계열사 제외 비금융 회사 인터넷 전문은행 지분 30% 이상 늘려주는 방안 추진 뉴스

Implication

- News 1 : 다음카카오측에서 HK저축은행 인수설을 전면 부인했으나(관심도 계획도 없다), 중금리 고객을 타겟으로 하는 저축은행 업계의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에 대한 경계심을 대변하는 의미 내포
- Issue 2 : 6월 금융위의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 발표 시 금산분리법, 금융실명제, 최소 설립자본금 및 업무범위 제한 등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핵심 규제법안에 대한 완화 조치 등이 포함될 가능성 높다고 판단. 아직 위의 'News 2' 내용은 확정된 아니지만 비금융 업체의 인터넷 전문은행 참여를 위한 법안 정비 가능성 높다고 판단(금산분리법 조정 또는 완화 등)

Call

- 1 인터넷 전문은행 관련 다음카카오측 공식 입장은 아직은 '미검토 중'임. 그러나, 현실적으로 다음카카오의 인터넷 전문은행 참여 가능성, 나아가 중요한 핵심역할을 담당할 가능성 높다고 판단(향후 법안 조정 결과에 따라)
 - 인터넷 전문은행의 주요 틈새상품/특화상품 중 상당부분(모바일 클라우드펀딩, P2P 대출 등)은 기본적으로 모바일 SNS 플랫폼과 궁합이 잘 맞음. SNS의 속성이 Social Graph 통한 공유와 확산이기 때문. 독일 Fidor뱅크, 뉴질랜드 ABS뱅크 등 모바일 SNS(두 은행 모두 페이스북)를 마케팅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사례 다수
 - 카카오톡은 한국에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독보적 모바일 SNS 플랫폼. 따라서, 금융업체를 배제한 비금융 중심 컨소시엄을 주도하는 방식, 금융을 포함한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방식, 법인설립에 지분참여는 하지 않고 카카오톡 플랫폼만 제공하는 방식 등 한국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시 카카오톡을 활용한 다음카카오의 참여 방법은 다양하고 어떤 방식이든 카카오톡을 바탕으로 다음카카오가 중요한 역할 담당할 가능성 크다고 판단
- 2 인터넷 전문은행 마케팅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카카오톡을 보유하고는 있으나 은행업 경영노하우가 부족한 다음카카오 입장에서 금융권 배제 컨소시엄보단 금융권과 협업하는 형태가 가장 현실적 방법이라 판단

Buy (maintain)

목표주가

190,000 원

현재가 (원)	107,200	KOSDAQ	666.83pt
시가총액 (억원)	63,600	절대수익률 (% YTD)	-13.1
90 일 거래대금 (억원)	851.71	상대수익률 (% YTD)	-35.1
외국인 지분율 (%)	18.5	배당수익률 (% 15E)	0.3

컨센서스 대비 (연간 기준)

상회	부합	하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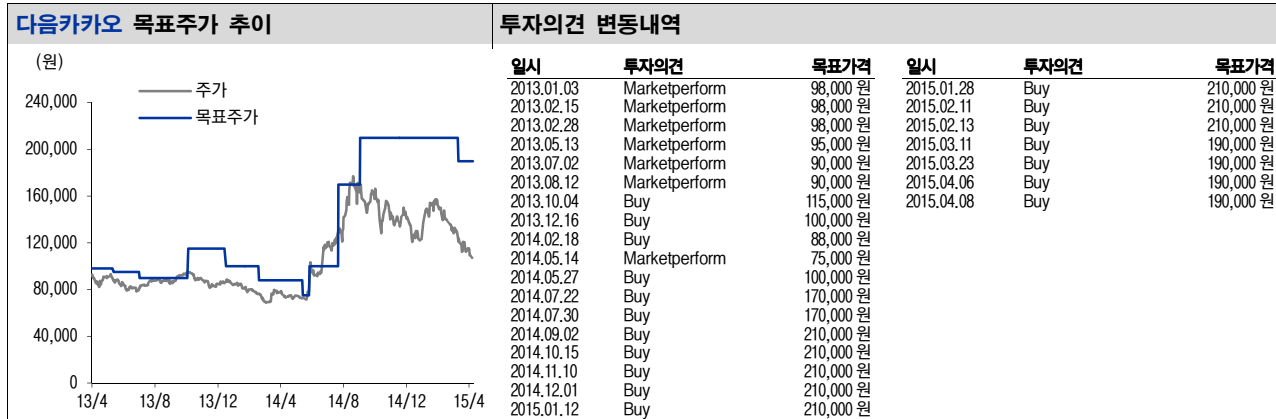
상대주가



재무데이터 (K-IFRS 연결기준)

(억원)	2013	2014	2015E	2016E
매출액	7,416	8,984	11,030	12,846
영업이익	1,476	2,092	2,836	3,731
순이익	1,273	1,403	2,290	3,016
ROE (%)	18.7	8.8	26.8	28.5
PER (x)	37.3	51.2	27.7	21.0
PBR (x)	6.5	2.9	2.4	2.1

자료 :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성중화)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구분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투자등급	적용기준 (향후 12개월)	비고
Sector (업종)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 투자등급 3 단계	Overweight (비중확대) Neutral (중립) Underweight (비중축소)		
Company (기업)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3 단계	Buy (매수) Hold (보유) Sell (매도) N.R. (Not Rated)	+20% 이상 기대 -20% ~ 20% 기대 -20% 이하 기대 등급보류	2015년 2월 2일부터 당사 투자등급이 기존 4 단계 (Strong Buy / Buy / Marketperform / Sell)에서 3 단계 (Buy / Hold / Sell)로 변경